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창조경제

9.26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. 26.(화) 오전 06:00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 일시	2017. 9. 25. (월)	담당 부서	투자정책과
담당 과장	김용채 과장(044-203-4070)	담 당 자	김상우 사무관(044-203-4071) 곽근열 사무관(044-203-4072)

새 정부 흔들림 없는 외국인투자정책 추진

- 산업부장관, 취임 후 첫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(9.26) -
- 추석연휴기간 통관지원 등 외투기업 애로 적극 해소 추진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9.26(화) 07: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**백운규 장관 주재**로 **『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』를 개최**했다.

< 간담회 개요 >

○ **일시 / 장소 :** '17. 9.26(화) 07:30~09:00 / 그랜드하얏트서울 (2F 남산II룸)
※ 산업부 장관 모두발언까지 공개

○ **참석자** : **[정부]** 산업부 장관, 무역투자실장, 투자정책관
[코트라] 외국인투자옴부즈만, Invest Korea 대표 등
[주한상의] 미국, EU, 영국, 호주, 독일, 일본, 프랑스, 중국
[업계] (**소재·부품**) 한국 3M, 한국 유미코아, 씨앤피브이 (**의약품, 의료기기**) 바이엘코리아, 한국써모피셔 (**자동차부품**) 존스콘트롤스, 브로제코리아 (**석유화학**) 한국솔베이, SK어드밴스드 (**무역·유통**) 이케아, BMW, 미쓰이물산 (**항공정비**) 보잉 (**수처리**) 베올리아워터코리아 (**IT**) 오라클, 피티씨코리아

○ 이번 간담회는 **취임 후 첫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**로써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에게 **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외국인투자정책**에 대한 **정보를 공유**하고,

○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**외국인투자기업의 우려를 해소**하고, **애로사항을 듣기**위해 마련했다.

□ 백운규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**2년 연속 최대실적을 경신하는 투자**에 대해 **감사를 표하고** "최근의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**한국은 여전히 기초경제여건(펀더멘털)이 튼튼한 매력적인 투자처**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."라고 말했다.

○ "한국의 주식시장은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**연초보다 상승**했으며, 충분한 외환보유고 등 **외환시장도 안정적**인 상황으로, 지금이야말로 다시 도약하는 **한국경제에 투자할 시점**이다." 라고 강조했다.

□ 백 장관은 아울러 **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**과 **외국인투자정책방향**에 대해서도 말했다.

① **새 정부**는 저성장, 양극화 국면에서 **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**으로의 **경제체계 전환이 필요**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해 **과거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큰 역할**을 해 온 **외국인 투자기업이 보다 큰 성과**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지원하기로 했다.

② **4차 산업혁명** 시대를 맞아 **미래유망산업 육성**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**새로운 사업 기회를 많이 창출**할 것이며, 정부는 **융복합 기술개발 지원, 테스트베드 구축** 등을 통해 이들의 투자를 유도할 것이다.

③ **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**에 대해서는 **조세감면, 입지지원, 현금지원 등의 3가지 묶음 지원책을 최대한 지원**하고, 이들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애로가 없도록 **채용박람회 등을 확대**하겠다.

*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"투자금액 중심"에서 "고용효과 중심"으로 개편 계획

④ 마지막으로, 산업부 장관과 고위 간부들이 외국인 투자기업 및 주한 외국상의와의 **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**하여 **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 해소**에도 주력하기로 했다.

□ 한편, 간담회 참석자들은 **새정부의 노동정책, 법률·규제, 에너지 정책** 다양한 분야에 대한 **제안·건의**를 하였다.

○ 정부는 **에너지 전환방향**과 이에 따른 **전기요금 인상우려**에 대해서는 "**탈원전**과 함께 **석탄발전을 감축**하고, 빈자리를 **신재생에너지**와 **천연가스**로 대체할 계획"으로, "향후 **5년 내에는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 전망**이며, **장기적으로도** 신재생 단가하락,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한 수요관리 등을 감안할 때 **요금인상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."** 라고 강조했다.

○ 또한, '**추석연휴기간 세관업무 지속 건의**'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.

□ 마지막으로 백 장관은 **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 유망산업**과 신**에너지 산업**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**적극적인 투자를 당부**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김용채 과장(☎044-203-4070) 또는 김상우 사무관(☎044-203-407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